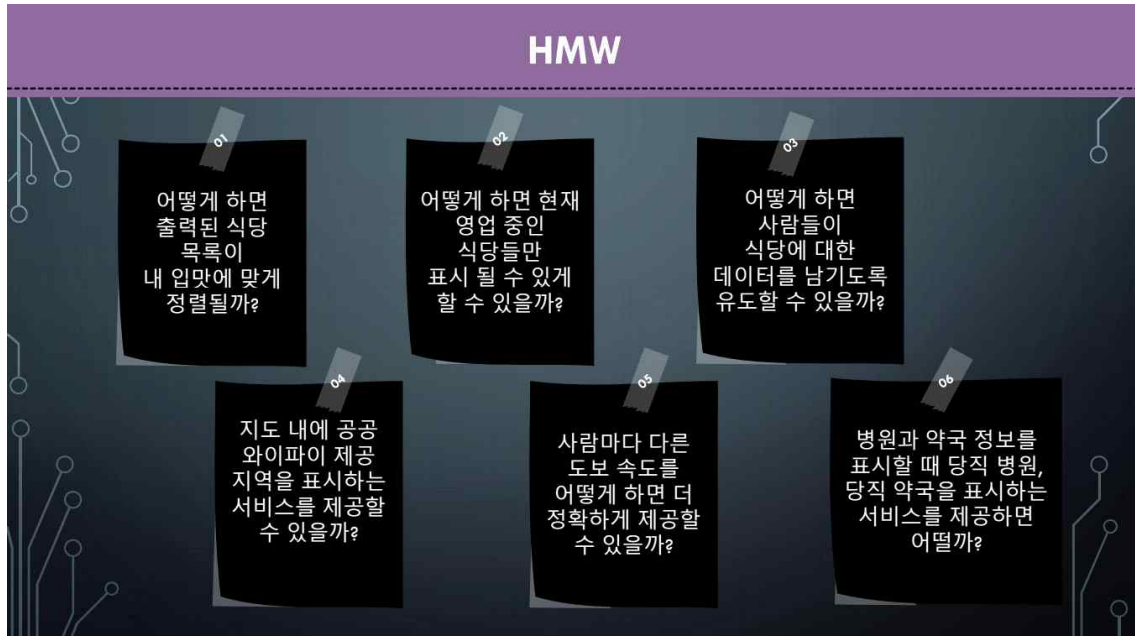


201302473 테라피 - 장인우

깃합 : https://github.com/pjw9412/designSprint_Therapy/tree/master/02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watch?v=mz8fqa2MF1w>



어떻게 하면 출력된 식당 목록이 내 입맛에 맞게 정렬될까 ?

다른 분야인 의류쇼핑몰을 참고하자면 후기들에 자신의 키와 몸무게 정보를 입력하면 자신과 비슷한 체형의 후기내용과 별점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옷을 음식으로, 키와 몸무게정보는 짠맛 매운맛 등의 입맛으로 바꿔서 적용하면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지도에서는 빅데이터의 분석결과 선호 연령층, 테마 키워드 등을 제공하여 식당 선택에 참고할 만한 정보를 주고있지만 식당목록을 정렬시켜주진 않고 있었습니다

솔루션 : 개인취향조사를 실시하여 자신이 선호하는 매운맛, 짠맛정도, 좋아하는 메뉴 등을 입력합니다 이 정보와 다른사용자의 후기를 비교하여 자신의 선호와 가장 유사한 식당으로 목록을 정렬합니다

어떻게 하면 현재 영업 중인 식당들만 표시 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

네이버 다음 구글 지도를 각각 확인해봤는데 식당영업시간은 입력되어있었지만 영업중 혹은 비영업중인 식당을 지도상에서 따로 표시하진 않고 있었습니다

솔루션 : 영업중과 비영업중인 장소가 서로 구별되도록 아이콘의 색을 다르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식당에 대한 데이터를 남기도록 유도할 수 있을까 ?

네이버지식인은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질문과 답변을 나누는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답변을 하면 내공이라는 포인트를 얻는데 이것을 모아서 사용자의 등급랭킹을 올리거나 경품응모를 하는데 쓰기도 합니다 이런 내공시스템을 참여유도를 위해 지도에서도 적용할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솔루션 :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해 지도 기여레벨과 등급을 부여하고 포인트지급을 통해 경품응모, 비매품판매 등의 기회를 줍니다

지도 내에 공공 와이파이 제공 지역을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

정부가 공공와이파이 존을 더욱 확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와이파이 존을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api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솔루션 : 기존 음식점, 카페 등을 스캔해주는 토글기능을 이용하여 공공와이파이 토글버튼을 추가합니다

사람마다 다른 도보 속도를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을까 ?

삼성헬스 어플을 보면 내 움직임을 걷기와 달리기로 구분하여 측정이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제 도보속도는 약 12km이지만 네이버지도 기준으로는 15km로 계산되서 오차가 생기게 됩니다

솔루션 : 지도앱에서 사용자의 움직임과 이동시간을 기록하여 도보속도를 계산하고 이 속도를 계정로그인을 통해 지도웹에서 반영되게 합니다

병원과 약국 정보를 표시할 때 당직 병원 , 당직 약국을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어떨까 ?

대전광역시에서는 표형식으로상호명과 주소 연락처를 제공하는걸 알 수 있었습니다

솔루션 :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의료기관 데이터를 받아와 지도상에서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당직병원 목록을 받아와 다른색으로 표시해주고 당직이 아닌 날에는 원래 색으로 돌아옵니다